

평양대부흥운동의 성경 해석

-통전적 융합의 해석학-

김정우*

들어가는 말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던 그날에는 온전한 한글 성경이 없었고 제대로 된 성경 해석학도 없었다.¹⁾ 20세기 서구 신학을 지배한 역사 비평학도 물론 없었다. 그날에는 신학도 없었고²⁾ 신학자도 없었으며,³⁾ 목사나⁴⁾ 노회나 총회도 없었다.⁵⁾ 그날에는 사실상의 나라도 없

* 총신대 신대원 교수, 구약학

- 1) 우리말 『신약전서』는 1900년 처음 출시되었으며(성서번역자회 편, 요코하마: 대영성서공회, 1900), 1906년까지 번역된 구약성경은 단지 창세기(성서번역자회 편, 요코하마: 대영성서공회, 1906)와 시편(성서번역자회 편, 요코하마: 대영성서공회, 1906) 밖에 없었다. 『구약전서』는 1911년 처음 출판 되었다(성서번역자회 편, 요코하마: 대영성서공회, 1911).
- 2) 우리나라 기독교 신문에서 ‘신학 분류’에 대한 첫 토론은 「신학월보」 2(1901. 1. 신년호)에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신학의 여러 분야들이 분류되며, 성경신학과 원문 비평도 소개된다.
- 3) 흥미롭게도 평양신학교의 교장이었던 마포 삼열 목사는 1906년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갔으며, 평양대부흥 기간동안 한국에 없었다.
- 4) 장로교에서는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7명이 1907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러나 감리교에서는 1901년 5월 14일 김창식이 한국에서 첫 목사로 임직되었다. 이덕주,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서울: 흥성사, 2006), 89.
- 5)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1907년 9월 17일에 ‘독노회’를 조직하게 되었으며, 그 때 선교사 38명과 한국인 장로 40명이 참석하였다. 한석진 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노회록, 제1회-제5회』(경성: 야소교서회, 명치 45년), 4.

었다.⁶⁾ 그날에는 조선 500년을 갈라놓았던 남자와 여자, 양반과 상놈, 주인과 종, 내국인과 외국인, 나아가 토착 교인과 선교사의 구별도 없었다. 그러나 그날에는 말씀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으며,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었다. 그날에는 회개와 갱신, 화해와 일치, 함께 있었다. 그날에는 남자와 여자, 양반과 상놈, 주인과 종, 동과 서, 남과 북, 민족과 세계가 모두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 그날은 통전적인 융합의 날이었으며 새 창조의 날이었다. 그날은 민족사의 거대한 혼돈 속에 진리의 빛이 임하고, 혼돈의 물이 갈라져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며, 공허했던 세상이 채워지고 새로운 사람이 창조되며 참된 안식이 임한 ‘신천신지’의 날이었다. 그날의 평양은 “분명히 새 세상이었다.”⁷⁾

1. 평양대부흥운동과 융합의 해석학

1.1. 문제 제기

우리는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어떻게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나라에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거듭나는 위대한 정신적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특히 성서학도로서 “평양대부흥의 해석학은 어떤 요소가 그와 같은 ‘통전적 삶의 갱신 운동’을 일으켰으며, 우리는 21세기 포스트모던의 글로벌 시대 속에서 어떤 성경해석적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6)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1907년 7월 24일에 고종은 강제 퇴위 되었다.

7)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마가렛 베스트가 브라운 총무에게 보낸 편지,” (1907. 3. 12.) 『한국교회대부흥운동 1903-1908』(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145.

1.2. ‘평양대부흥운동’

‘평양대부흥운동’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좁게는 1907년 1월 2일 (수)부터 22일(화)까지 평양 장대현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낮 사경회와 저녁 연합 집회에서 일어난 대부흥의 역사를 가리킨다.⁸⁾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듯이, ‘한국의 오순절’도 하루아침에 한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⁹⁾ 평양대부흥운동의 조짐은 이미 한국교회 초기(1890년 대)에 거의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¹⁰⁾ 특히 1903-1904년 하디(R. A. Hardie)를 중심으로 시작된 원산부흥회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양대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은 ‘평양’이 한국 부흥의 카이로스적 현장거점(現場據點)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¹²⁾ 평양이

8) 협소한 의미에 있어서 평양대부흥운동의 날짜별 모임과 특기 사항에 대해서는 이만열,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에 대한 몇 가지 검토,” (서울: 2006년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학술 심포지엄, 2006. 11. 4.), 9를 보라.

9) ‘한국의 오순절’(the Korean Pentecost)라는 용어는 평양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블레어가 명명한 것이다. William N. Blair and Bruce F. Hunt, *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s Which Followed*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7).

10) 「그리스도 신문」 6:10 (1902. 3. 6.) 에 따르면, 평양 사경회에는 목포, 서울, 만주 심양 등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11) R. A. Hardie, “R. A. Hardie’s Report,” *Minutes of the Seven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3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3), 25-28; R. A. Hardie, “R. A. Hardie’s Report,” *Minutes of the Eigh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4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4), 23-29.

12) 평양이 한국 초대교회 부흥의 진원지가 된 것에 김원근은 “조선 500년 역사에서는 특별히 업신여김을 당하여 깊은 죄에 빠진 도성이었으나 다행히 하나님의 참 이치와 예수씨의 참 빛이 밝게 비취사 전에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고 믿는 형제가 많이 일어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영적이며 정치적인 상징성 때문이다.¹³⁾ 따라서 우리가 ‘평양대부흥운동’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한국 초대교회의 대부흥운동’(1897~1910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¹⁴⁾

1.3. 평양대부흥운동의 성경 해석학: 통전적 융합의 해석학

한국 초기대부흥운동은 하디나 길선주 같은 한두 명의 영웅적인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하여 인위적이며 도식화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 초대 기독교 정신이 한국의 고유한 종교적 정서, 문화, 역사, 언어와 밀접하게 융합된

더럽던 땅이 깨끗하여지고 어둠던 곳이 밝아져서 교회가 흥왕함이 한일청 삼국에 으뜸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 신문」 10:6 (1906. 2. 8.)

- 13) ‘평양’은 ‘두 지평’(two horizons)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100년 전 평양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위기 상황을 가장 잘 상징하고 있으며, 오늘의 평양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한국의 전쟁과 분열과 위기를 상징하고 있다.
- 14) 시작하는 시점(terminus a quo)을 1897년으로 잡은 것은 이 해에 「조선그리스도인 회보」(1897. 2. 2.)와 「그리스도 신문」이 한국 최초의 기독교 신문으로 발간되며(1897. 4. 1.) 초기 부흥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신문들을 살펴보면 사경회는 1898년 10월 20일 평양에서 가장 먼저 보고되고 있으며 「그리스도 신문」 2:42 (1898. 10. 20.)], 1900년 12월 평양 사경회에서는 “사람들이 구름 같이 모이며, 영혼을 먹이는 큰 잔치가 베풀어지고, 서로 인애함이 가득하였다”고 한다 「신학월보」 1:4 (1901. 3.)]. 1902년 금당 사경회에서는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참여하여 한글 작문 대회도 함께 열렸으며 「신학월보」 2:4 (1902. 4.)], 1904년 평양교회에서는 부인 사경회를 독자적으로 열었는데 “북지방 전도 부인 에스티씨와 모리쓰 부인이 성신의 인도하심을 견디지 못하여 성신의 주시는 권능으로 대한 방언을 잘 하시는 고로 공부의 곤한 것을 다 잊고 하루에 일곱 시간 동안을 공부를 가르쳤다”고 한다 「신학월보」 4:7 (1904. 7.)].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오순절에 대한 기대와 성령 체험은 1898년에 보고되고 있으므로 1897년을 출발점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으로써 이루어졌으며, 기독교의 고유하고 순수한 에너지가 말씀과 명령의 역사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를 각성시키고 갱신하여 거대한 사회적 화해와 일치를 이룬 통전적 융합의 생명 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평양대부흥운동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통전적 융합의 해석학’의 모델을 찾아보고자 한다.¹⁵⁾

2. 기독교와 한국 문화의 융합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평양대부흥운동은 조선 500년 역사의 실종이라는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 20세기 초는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위기였다. 당대의 상황에 대한 보고들을 살펴보면 “민심은 언덕 위의 풀과 같으며”,¹⁶⁾ 사람들은 “나는 의지할 곳이 도무지 없소”라며 탄식하였다.¹⁷⁾ 1904년 노일전쟁이 일어나던 해에는 “일본과 아라사가 원수 가림으로 군대를 일으키며 싸움을 시작하고 대한국에는 화적이 처처에 별떼같이 일어나 백성을 해롭게

15) 필자의 ‘융합적 해석학’의 뿌리는 티슬턴의 ‘두 지평의 융합’에 일차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Anthony C. Thiselton, *The Two Horizons: New Testament Hermeneutics and Philosophical descrip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Heidegger, Bultmann, Gadamer, and Wittgenstein* (Grand Rapids: Eerdmans, 1980). 또한 ‘통전적 융합’(holistic convergence)이라는 용어는 김용복의 “통전적 수렴 통합: 생명학적 평화의 비전”에서 가져왔다. 융합(convergence)이라는 용어에 대한 기술 문명적 개념은 W. B. M. Roco,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Nanotechnology, Bi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gnitive Science*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3)에서 잘 제시되고 있다.

16) 「그리스도 신문」 6:4 (1904. 1. 23.) 26.

17) 무스, “대각성,” 「한국 선교현장」 2 (1906. 1. 51.);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한국교회대부흥운동 1903-1908』, 78. 나라의 상황이 급박해졌기 때문에 한 사설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큰 소리로 부르라”고 말한다. 「신학월보」 4:9 (1904. 9.)

하고 동학이 곳곳에 모여 인심을 소동하게 하며”,¹⁸⁾ “노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조선은 그 존엄성이 벌거벗겨졌다.”고 한다.¹⁹⁾ 노병선은 “대한이 오백 년 이래로 복숭아 꽃 동산 속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오늘을 당하여 비로소 꿈을 깨어보니 무정한 세월은 점점 흘러가고 풍파는 날로 일어나며 머지않아 큰 걱정이 생길 터이니 뉘가 먼저 깨달을꼬. 슬프고 슬프다.”며 애통하였다.²⁰⁾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선교사들은 은둔과 단절의 나라인 조선에 기독교 정신을 통한 문명사적인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하나의 국가로서 조선이 당하고 있는 위기는 당대의 정치이념이 된 유교나 종교로서의 불교나 도교를 통하여서 헤쳐나갈 길이 없고 ‘참 도’(道)인 기독교 신앙을 통한 문명사적인 전환만이 살 길이라고 보고, 기독교와 한국의 융화를 힘을 다하여 모색하였다.²¹⁾ 그들이 볼 때, ‘교도’(敎道)는 정치의 근원이요 백성 생명의 근원이며,²²⁾ “국가의 흥망성쇠는 예수 교인과 큰 상관이 있고”,²³⁾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는 번성할 것이므로”,²⁴⁾ 조선은 기독교를 통하여 자주 독립을 이루기를 바라보았다. 한 선교사 부인은 임종 직전에 한국교회를 위하여 드린 기도 편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나큰 영광으로 대만에 창건되어 아세아 인민의 복음 전도에 한국의 방조(傍助)가

18) 「신학월보」 (1904. 3.)

19) Blair & Hunt, *The Korean Pentecost*, 62.

20) 「대한그리스도인회보」 4:7 (1900. 2. 15.)

21) 기독교와 한국의 융합 프로그램은 특히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 성경 강해가 사무엘서로부터 시작됨으로써, 당시의 왕이었던 고종에게 ‘다윗의 역할’을 투사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2) 「그리스도 신문」 10:7 (1906. 2. 15.)

23) 「그리스도 신문」 5:22 (1901. 5. 30.) 이후 이승만은 ‘대한의 장래는 교회에 달렸다’는 입장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극단을 잘 지적하며 균형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신학월보」 3:9 (1903. 9.)

24) 「신학월보」 1:12 (1901. 11.)

장차 클 것”을 예언적으로 내다보았다.²⁵⁾

2.1. 기독교와 한국 역사의 융합

한국 초기 기독교는 서구적 기독교를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기독교를 형성하기 위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초기 선교사들이 볼 때 한국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유산을 망각하고 있었으며, 이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확립하여야 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 신문」에서는 한국사를 민족사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하였으며, 단군 조선으로부터 고대사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역사를 지속적으로 연재하였다. 이 신문에서 단군은 예수 강림 전 2200-2300년경에 평양에 도읍하여 ‘조선’을 세웠으며 후에 ‘아달 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라고 서술되며 단군 신화 자체에 대한 신학적 평가는 유보되고 있다.²⁶⁾ ‘고려절사 정몽주’는 충신으로 소개되며, 포은(圃隱)의 단심가(丹心歌)를 인용하여 신자의 도리에 적용되고 있다.²⁷⁾ 조선의 학문 전체가 수천 년 동안 사대주의에 빠져 중국 학문에 종속되었으며, 사람들은 중국의 임금을 조선의 임금보다 더 높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자주 독립 정신이 상실되었으므로, 학문적 자주 독립을 힘써야 한다. 따라서 “대한 사람들은 동국 사적을 먼저 상고하여야 하고, 그 후에 중국사를 공부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²⁸⁾

25) 「신학월보」 6:1 (1908)(원문에서 월 표기는 불분명함).

26) 「그리스도 신문」 5:37 (1901. 9. 12.)

27) 「그리스도 신문」 5:48 (1901. 11. 28.)

28) 「그리스도 신문」 1:39 (1897. 12. 23.)

2.2. 기독교와 한글의 융합과 성경번역

기독교가 조선에 처음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9) 초기 선교사들이 볼 때, “글이라 하는 것은 그림 그리는 자의 지필묵과 사진기와 같은 것”으로서 화가와 사진사가 자신이 본 것을 작품으로 담아내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학문을 담아내어야 하는 것인데, 바로 이점에 있어서 한글보다 더 우수한 언어가 없었다.³⁰⁾ 그들에게 있어서 세종대왕은 바로 ‘성현’이었다.³¹⁾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구음을 따라 지으신 것”으로서, “로마 글자와 의미가 같아 배우기와 쓰기가 쉬워 각항 학문을 설명하기가 이 같이 쉬운 것이 없는데 불행히 그 까다로운 한문 글씨에 권리를 빼앗기고 국문을 이르되 알글이라 여자 배에 통정하는 문자라 하니 이같은 마음을 구주(歐洲) 사람에게 말하면 비소함을 받을지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만약 “전국 인민이 상하남녀 물론하고 한글을 배운다면 불과 삼십년에 대한이 문명한 지경을 바라볼 터이나, 만일 한문을 조화 있는 글이라 하여 폐단되는 줄 모르고 줄곧 쓰게 되면 백년을 지내더라도 점점 국민에 기상이 탐약할찌로다.”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하였다.³²⁾ 그들은 한문과 언문을 공부하는 데 드는 노력과 결실을 삼층 집에서 일층으로부터 삼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하며, 1층에서 팔쩍 뛰어 삼층으로 오르는 것(한문)과 계단을 타고 오르는 것(언문)으로 대조하면서,³³⁾ 우리나라는 ‘한문의 결박에서 벗어날 때’ 비

29) 「그리스도 신문」 10:5 (1906. 2. 1.). 서울 중부골에 살고 있는 김종상은 1906년 이천 오매라 동네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수십 명이 모여 복음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글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30) 「대한그리스도인회보」 4:3 (1900. 1. 17.)

31) 「그리스도 신문」 1:19 (1897. 8. 6.)

32) 「대한그리스도인회보」 4:4 (1900. 1. 24.)

로스 자주 독립과 문명의 진보를 동시에 이룰 것으로 보았다.

기독교와 한국의 만남은 한글 성경 번역을 통하여 문명사적인 전환을 만드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지 5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학문적인 글로서 철저하게 소외된 한글은 이제 세계 최고의 경전인 성경을 담아내는 글로 거듭나고 부활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한문만이 문학과 역사와 사상을 담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한글로서는 완벽한 의사 표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한문만을 고집하였는데, 한글이 ‘경전 가운데 경전인 성경을 담는 글’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문명사적 전환을 이루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

특히 한글 성경이 외국 선교사들이 아니라 한국 밖에서 한국인들의 손으로 태어난다는 점이 놀랍다. 개신교사적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은 스코틀랜드인 토마스(R. J. Thomas)를 통하여 1866년 9월에 처음 평양에 전해지게 되었다.³⁴⁾ 이후에 같은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존 로스(John Ross)는 한국에서 성경을 전하다가 순교한 토마스의 이야기를 들은 후 한국 선교에 뜻을 두고 만주의 고려문에 선교 여행을 갔으며,³⁵⁾ 그곳에서 이응찬과 서상륜을 만나 1877년부터부터 성서번역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1882년 처음으로 『예수성교누가복

33) 「그리스도 신문」 1:18 (1897. 7. 29.)

34) 1863년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총무였던 윌리엄슨(A. Williamson)은 1865년 9월 한국 선교를 희망하던 토마스(R. J. Thomas) 목사에게 한문성경을 주어서 한국 서해안을 방문하게 하였고, 토마스는 제너럴 서면호를 타고 평양까지 가서 한문 성경과 전도 책자를 전하였으나 1866년 9월 2일 대동강가에서 순교하게 되었다.

35) 로스를 만주에 파송한 사람도 윌리엄슨이었다. 로스는 1873년 윌리엄슨으로부터 6년 전에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한 소식을 들은 후 한국 선교에 뜻을 두었고, 1874년 10월 9일 영구를 출발하여 첫 번째 고려문 여행을 나섰으며, 이 때 의주 상인으로서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수세자가 된 백홍준의 부친을 만나게 되었다.

음전서』이 출판되고,³⁶⁾ 1887년에 『예수성교전서』가 한글 최초의 신약전서로 출판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³⁷⁾ 로스가 만주에서 성경번역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1882년 일본에 유학을 간 이수정은 『신약마태전』(1884)을 필두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언해하고(1884), 『신약마가전 복음서 언해』(1885)를 출간하였다.³⁸⁾ 초기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로스 목사가 청국 만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신약 말씀을 번역하게 하고”, 또한 이수정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문으로 성경 번역한 것을 생각하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전도 위해 미리 예비하신 줄 알 것이라.”며 감격해 하였다.³⁹⁾

로스 역과 이수정 역은 전문적인 성서학자들이 한 번역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번역이었기 때문에,⁴⁰⁾ 이후 한국교회에서는 초교파적인 번역 위원회를 통한 공인 번역의 필요성이 요청되었으며, 결국 상임 성서 실행위원회(PEBC)가 구성되어 새로운 번역이 나오게 되었다.⁴¹⁾

36) 로스는 1876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두 번째 고려문 여행을 나섰으며, 그 때 이응찬을 만나 1877년부터 성경 번역을 시작하였다. 그 이후 로스는 서상륜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 이어 누가복음 번역을 맡기게 되었다. 김승태, 류대열,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 성장과 수난』(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37;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존 로스, J. 맥킨타이어 역(봉천: 문광서원, 1887).

37) 김승태, 류대열,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 성장과 수난』, 74; 『예수성교전서』, 존 로스, J. 맥킨타이어 역(심양: 문광서원, 1882. 3. 24.).

38) 이수정 편, 『신약 성서마태전』(요코하마: 미국성서공회, 1884); 『신약 성서로가전』(요코하마: 미국성서공회, 1884); 『신약 성서약한전』(요코하마: 미국성서공회, 1884); 『신약 성서사도행전』(요코하마: 미국성서공회, 1884).

39) 「그리스도 신문」 10:16 (1906. 4. 19.)

40) 로스는 번역 전문가라기보다 번역 행정가였으며, 그의 번역은 서북 방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 그 ‘유용성’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었으며, 공인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초의 번역을 만들어 내었기 때문에 이후 번역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 위원들은 “이후에 출판하는 성경은 본 말뜻도 구비하고 대한 말도 순순히 하여 알아보고 공부하기에 편리하여야 한다.”는 번역 방침을 가졌다.⁴²⁾ 그들은 당시의 중심 매체였던 「그리스도 신문」, 「조선그리스도인회보」, 「신학월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성서 번역을 연재하여 갔으며, 평양의 한 독자는 마치 ‘배고픈 사람과 목마른 사람처럼’ 신속한 성경 번역을 요청하였고,⁴³⁾ 성경 번역 과정에서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성경번역을 위하여 목포로 가던 길에 군산 앞바다의 어청도 근해에서 선박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깊이 애도하였으며,⁴⁴⁾ 1906년 4월 19일 『한글신약전서』의 번역이 완료되자 크게 기뻐하였다. 성서 번역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상임 성서 실행위원회의 초대 총무가 된 켄뮤어(A. Kenmure)는 1901년 “한국교회에서 성경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말씀은 읽히지고 암송되고 있다. 말씀은 이 생기 없고 영감이 사라진 백성들의 피와 뼈와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으며, 그들을 반드시 새로운 남녀로 만들 것이다.”라는 예언적 발언을 하였다.⁴⁵⁾ 1911년 완성된 첫 성경인 『성경전서』가 발

41) 첫 번역 위원으로서 장로교회에서는 언더우드, 게일, 리 목사가, 감리교회에서는 시란돈과 아펜젤러가 선출되었다. 상임 성서 실행위원회(PEBC, Permanent Executive Bible Committee)는 “미국 선교사들로만 구성되었으며, 호주 장로교나 캐나다 선교회와 같은 영국계 선교회의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1893년에 조직되고 1904년에 해체되며 이후 성서위원회(Bible Committee) 시대가 열린다. 김승태, 류대열,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 성장과 수난』, 277, 303.

42) 「조선그리스도인회보」 3:43 (1899. 10. 25.)

43) 「조선그리스도인회보」 2:17 (1898. 5. 4.)

44) 「그리스도 신문」 10:16 (1906. 4. 19.). 게일(Gale)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는 그의 생명을 성경 번역을 위해서 다 바쳤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한다. 김승태, 류대열,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 성장과 수난』, 267.

행됨으로써 한글은 세계적인 언어로 거듭났다.⁴⁶⁾ 한글 성경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민족의 얼과 언어를 보존하여 주었으며, 기독교는 지난 100년 동안 크게 부흥하면서 한국의 정신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3. 말씀과 성령의 융합

한글 성경의 번역과 함께 생명의 도에 갈급하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열망하였으며, 초기 교회는 사경회를 통한 말씀 공부와 기도회를 통한 성령체험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융합’을 이루어 진정한 부흥과 각성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3.1. 평양대부흥운동의 말씀

우리는 평양대부흥운동 기간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본문에 근거한 어떤 설교가 있었는지 잘 모르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유일한 역사적 문헌적 증거는 길선주 목사가 부흥회 기간(1907. 1. 6-12.)동안 전한 설교 제목들과 블레어(Blair)의 설교 본문 하나(고전 12:27)와⁴⁷⁾ 1월 20일 저녁에 길선주의 실물 설교 하나(graphic sermon) 뿐이다.⁴⁸⁾ 우리는 평양대부흥 현장에 있었던 구체적인 성경

45) 김승태, 류대열,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 성장과 수난』, 263.

46) 성서번역사회 편, 『성경전서』 (요코하마: 대영성서공회, 1911. 3. 15.)

47) 블레어는 1907년 1월 12일(토) 밤 “불화와 연합”(Discord and Unity)이란 제목으로 고린도 전서 12:27을 가지고 설교하였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 오기 전에 사냥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을 때 온 몸에 고통을 느낀 것을 간증하며 설교했을 때, 한국교인들은 죄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고통을 가져옴을 깨닫게 되었다. Blair & Hunt, *The Korean Pentecost*, 69.

48) 이만열,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9. 한국초대교회에는 실물 설교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평강동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한 부인이 덧저

해석을 볼 수 있는 사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우리는 초대교회의 폭넓은 맥락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살펴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⁴⁹⁾

3.1.1. 한국교회의 중심 특징으로서의 말씀 사랑

언더우드(Underwood)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중심적이며 일차적인 특징은 “성경 공부에 대한 특별한 열정”이었다.⁵⁰⁾ 평양대부흥운동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블레어는 “한국 선교사업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로서 사경회”를 꼽으며, “마치 유대인들이 율월절을 지키듯이 한국 교인들은 그 때만 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오직 성경 공부와 기도에만 전념한다.”고 보고하였다.⁵¹⁾ 사무엘 마펏(S. A. Moffett)은 한국교회가 성경에 대하여 특별한 사랑과 종교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하면서, “한국교회에서 성경은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설교가 예배 정신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이야말로 한국교회의 신앙과 지식의 기반으로서 영적 생활을 추구해나가는 데 필요한 영감을 공급해 주고 있다.”고 잘 지적하였다.⁵²⁾ 무어(Moore)는 대부흥

고리를 벗어 던지며 죄를 이와 같이 다 벗습니다 하고 열심 내어 연설하였다”고 한다. 「그리스도 신문」 10:9 (1906. 3. 1.)

49) 하디의 중심 본문은 요한일서였다(요일 3:9). 『한국교회대부흥운동 1903-1908』, 31. 1906년 장대현교회에서 개최된 평양 주재 선교사들의 사경회와 기도회(8월 26일-9월 2일)에서는 요한일서를 함께 공부하였다고 한다.

50) H. G. Underwood, “Korea’s Crisis Hour,” *KMF* (1908. 9.), 131.

51) Blair & Hunt, *The Korean Pentecost*, 67.

52) S. A. Moffett, “Evangelistic Work,” *Quarto Centennial Papers Read before the Korean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09), 17-18; 이덕주, 『한국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280에서 인용됨.

기간 동안 이루어진 한 서울의 사경회에 대하여, “회중들이 성경을 반복하여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수많은 소중한 본문들이 지도자를 따라 절 별로 반복되며 읽혀졌다”고 한다.⁵³⁾

3.1.2. 경전으로서의 성경

한국교회가 성경에 대하여 특별한 사랑과 열정을 쏟은 것은 성경이 단지 ‘연구할 대상으로서의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동양적 경전 의식에 근거한 헌신 때문이었다. 경전으로서 성경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의 근본을 가르쳐주며”, 말씀을 믿는 나라는 개화되고 번성하여 세계사 속에 이바지 할 것으로 믿었다.⁵⁴⁾ 성경은 ‘성신이 쓰신 말씀’으로서 영감되고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중하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게 되었다.⁵⁵⁾ 이와 같은 성경관의 배후에는 동양적인 경전관이 작용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덕주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을 단순한 책이 아니라 종교적 경외의 대상으로서 ‘경전’으로 인식하였다.”고 평가한다.⁵⁶⁾ 평양에서 활동하였던 폴웰(E. D. Follwell) 선교사의 부인은 마달린(Madaline)이란 전도 부인이 신자가 아닌데도 복음서를 한 번에 여러 권 사려고 하던 어떤 여인에게 왜 사려느냐고 묻자, “가계의 종이 값 보다 그 책 종이 값이 더 싸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자, 한 권만 팔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⁵⁷⁾

그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책을 모욕하면

53) F. M. Moore, “The Revival in Seoul,” *KMF* (1906. 6.), 116.

54) “나라의 성함과 쇠함이 교도에 있음,” 「그리스도 신문」 10:7 (1906. 2. 15.)

55) 「그리스도 신문」 10:16 (1906. 4. 19.)

56) 이덕주, 『한국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281.

57) *KMF* 편집부 편, “Cheap Paper,” *KMF* (1907.6.), 87.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책을 마루에 둔다면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찢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책을 두 손으로(with both hands) 들어서 두 손으로 선반 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마달린이란 이름의 한국 여인은 동양 사람들이 경전을 공경하듯이 성경을 공경하였으며, 선교사 부인은 그런 경전 인식을 신기하게 여겼다. 초기 공동체에 있어서 성경은 경전으로서 “성신이 쓰신 것이며, 사람의 의견으로서는 능히 지을 수 없는 것”이었다.⁵⁸⁾

대개 그 속에 기록한 말씀은 다 오묘하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며 또 구약과 신약을 지은 상거가 수천 년 동안이로되 구약에 기록한 말씀이 신약에 다 응하였다. 생각건대 영원히 계신 신이 짓지 아니하였으면 사람이 어찌 이 같이 서로 응하게 쓰리요?⁵⁹⁾

따라서 “성경의 오묘한 진리는 사람의 지혜로 알 것이 아니요, 성신을 받은 이후에야 해득할 줄로 알아야 한다.”⁶⁰⁾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므로 “귀하고 거룩한 뜻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 허다한 서책과 같이 생각하고 급한 마음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⁶¹⁾ 성경은 ‘거울’로서 우리의 실상을 비추어주며,⁶²⁾ “어두운 밤에 금등잔이 되어 밤이 맞도록 빛남과 같으니 사람이 성경 빛으로 자기 몸을 비추어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함이 심함을 볼 것이다.”⁶³⁾ 우리가 성경을

58) 「그리스도 신문」 10:1 (1906. 1. 4.)

59) Ibid., “각 복음서는 성신의 지휘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리스도 신문」 5:47 (1901. 11. 21.)

60) 「그리스도 신문」 5:51 (1901. 12. 19.)

61) 「그리스도 신문」 10:10 (1906. 3. 8.)

62) 「그리스도 신문」 5:9 (1901. 9. 26.)

63) 「신학월보」 6:1 (1908). 여기에서는 출판 월, 일이 분명하지 않다.

볼 때에는 “일심정력을 드린 후에야 거의 참 이치의 문으로 들어가는 고로, 어릴 때부터 독실히 믿어야 한다. 그 뜻을 연구하기를 마치 금 캐는 자가 땅 속에 감추인 금을 자세히 살펴 찾는 것 같이 한 연 후에야 그 진실하심과 감사하심과 권능과 그 감화 시키는 뜻들의 오묘한 것을 알 수 있다.”⁶⁴⁾ 이리하여 그들은 말씀을 들은 즉시로 실천에 옮기며 신행일치를 이룰 수 있었다.

3.1.3. 초기 성경 해석학에 나타난 융합적 요소

초기 공동체는 성경을 경전으로서 높이 받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성경 해석은 당대의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받은 신학 교육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아래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1) **문자적 해석.** 초기 문헌에는 천지창조의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⁶⁵⁾ 아담은 주전 4004년에 창조되었고,⁶⁶⁾ 에덴 동산은 그 위치를 알 수 없으며, 아담의 탄생 후 1656년이 지난 후에 노아 홍수가 있었다.⁶⁷⁾ 노아의 말은 예언이 되어, 함의 자손은 흑인이 되었으며,⁶⁸⁾ 룩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요나가 삼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는 것은 ‘모두 예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사실이며’,⁶⁹⁾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란의 기간으로서 3년 반은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⁷⁰⁾

64) 「그리스도 신문」 5:51 (1901. 12. 19.)

65) 참조, 창세기 1:2,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였다”는 “성령이 물 위에서 숨을 쉬었다”로 번역된다. 「그리스도 신문」 2:9 (1898. 3. 3.)

66) 「그리스도 신문」 5:34 (1901. 8. 22.)

67) 「그리스도 신문」 5:16 (1901. 4. 18.)

68) 「그리스도 신문」 5:19 (1901. 5. 9.) 이 해석은 교회의 통속적인 해석으로서 잘못 된 것이다. 노아는 함의 자손 전부를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가운데 한명인 ‘가나안’을 저주하였다(창 9:25).

69) 「그리스도 신문」 5:33 (1901. 8. 15.)

(2) **풍유적 해석.** 오늘날 해석학자들에게 있어서 ‘문자적 해석’과 ‘풍유적 해석’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런 갈등 없이 자유롭게 희석되고 있었다. 이리하여 노아가 홍수 후에 내어 보내는 비둘기는 ‘성령’을 가리키며,⁷¹⁾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매와 솔개’가 제물을 먹으려고 덤벼드는 장면에서, “솔개는 마귀이며, 우리도 기도할 때 마귀가 들어와 영혼을 더럽게 하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내어 쫓아야 한다.”⁷²⁾ 이삭 이야기에 대한 해석은 마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처럼 ‘거대한 알레고리적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리하여 이삭의 결혼은 ‘예수를 위해 교회를 얻는 모양’이며(계 21:90,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아내를 얻은 것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일로 만국 가운데 교회를 얻음과 같으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전도하는 우리를 가리키고, 이삭이 아내를 얻어 영화롭게 된 것 같이 예수도 교회를 통하여 영화롭게 됨을 보여준다.⁷³⁾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운 동정녀’로서 신령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주는 것을 가리키며,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은, 금, 패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⁷⁴⁾

신구약 성경에는 일곱 개의 산이 나오는데 모두 영적인 의미를 가지며, 아라랏산은 노아가 새 세상을 바라본 산이므로 ‘장래 올 새 세상’, 모리아산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 될 것’, 시내산은 ‘오는 심판’, 느보산은 ‘믿는 자에게 미리 하늘 보는 것’, 갈멜산은

70) 「그리스도 신문」 5:38 (1901. 9. 19.)

71) 「그리스도 신문」 5:16 (1901. 4. 18.)

72) 「신학월보」 1:10 (1901. 9.)

73) 「그리스도 신문」 5:35 (1901. 8. 29.)

74) 「그리스도 신문」 5:36 (1901. 9. 5.)

‘하나님이 모든 원수 이길 것’, 변화산은 ‘이 다음 천년 동안 예수께서 왕 노릇할 것’, 갈보리산은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가르친다.⁷⁵⁾ 이 외에도 엘리야와 시리아 군대의 싸움은 비유로서 사람의 영혼의 세계를 보여주며,⁷⁶⁾ 신약 성서에서 가라지는 ‘거짓 마음을 먹고 교회에 들어오는 자’이며,⁷⁷⁾ 예수의 오병이어는 ‘일곱 성신’을 가리키고,⁷⁸⁾ 예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옛새 후’에 변화 산에 오른 것은 세계사에서 ‘6000년을 가리키며’,⁷⁹⁾ 예수의 포도원 비유(마 21:33-41)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동산은 유대국, 망대는 그 나라의 부요함과 강함, 농부는 유대인, 실과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함과 자비함,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전체적으로 장차 올 심판을 가리킨다.⁸⁰⁾

(3) **기독교적 해석.** 초대교회 해석학에서 구약의 인물과 절기와 물건들은 모두 기독교적인 예표와 예언으로 해석된다. 이리하여 창세기 3:21에 암시된 짐승의 피는 ‘십자가의 피’, 뱀이 칠 자손은 예수이다.⁸¹⁾ 노아의 배는 예수의 구속하심,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심, 예비된 어린 양은 예수, 그 때 나타난 ‘주의 천사’는 예수이며,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죽었다가 사신 예수를 가리킨다. 야곱이 베엘에서 본 사닥다리는 곧 예수이며, 압복 강에서 야곱과 씨름한 이는 ‘곧 육신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인 예수이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그가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것은 예수의 당할 일을 예표한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이며, 만나는 영혼의 양식인 예수이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믿기 전에 죄

75) 「그리스도 신문」 5:36 (1901. 9. 5.)

76) 「그리스도 신문」 2:13 (1898. 3. 31.)

77) 「그리스도 신문」 5:19 (1901. 5. 9.)

78) 「그리스도 신문」 5:22 (1901. 5. 30.)

79) 「그리스도 신문」 5:25 (1901. 6. 21.)

80) 「그리스도 신문」 5:33 (1901. 8. 15.)

81) 「그리스도 신문」 5:9 (1901. 2. 28.)

에 종노릇함을, 홍해를 건넌 것은 말씀 듣고 마귀의 종노릇을 벗고 죄 범하던 곳을 떠남을, 홍해 도하는 거듭남을 보여준다. 광야생활은 신자의 세상 생활이며 광야의 불순종은 신자의 자범죄를 보여준다. 회막과 회막에 딸린 모든 물건들은 모두 예수를 대표한다. 한나가 기도하며 바라본 메시아는 곧 예수이며, 사무엘 하 7장의 ‘아들’도 예수를 가리킨다.

(4) **성경신학적 해석.** 에덴 동산과 끝날 심판은 처음과 나중으로 상호 조응을 이루며,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의 연관성이 힘 있게 논증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마지막 심판 모습을 보여준다. 예루살렘성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 십계명은 보편성을 지니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므로 신자는 힘써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상의 해석들을 보면, 초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지극히 사랑하였지만, 전반적인 해석적 분위기는 문학적인 형식에 대한 고려 없이 문자적으로 이해되었고, 풍유적 해석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이 ‘보잘 것 없는’ 해석으로 그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대의 해석적 분위기(milieu)로 볼 때, 성경의 문자 배후에 더 깊은 뜻이 있다는 믿음이 오히려 성경의 경전성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을 것이며,⁸²⁾ 알레고리적 해석은 해석자들의 천재성을 오히려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느껴지게 하였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풍유적 해석은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배워온 것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오히려 더 인기를 끌 수 있는 해석 체계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배 목사 부인은 성경공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알레고리를 전해주고 있다.⁸³⁾

82) 송대의 성리학은 고대 경전의 이야기 속에 ‘더 깊은 뜻’이 있다고 믿었으며, 주자는 시경 전체를 군자의 도리라는 관점에서 풍유적 해석을 하였다.

성경을 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믿는 마음을 온전하게 못한다. 비유컨대 암탉이 그 품는 자리를 떠나 병아리를 까지 못하는 것 같도다. 닭이 알을 품는 것이 괴로운 줄 알고 자리를 떠나 그 알을 덥게 하지 아니하면 어찌 병아리를 낳 수 있겠는가. 간절히 품어 그 몸에 있는 기운이 그 알을 덥게 하여야 닭이 병아리를 낳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기만 하고 헤아리지 아니하면 참 이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를 데우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에게 생명 주시는 참 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게으른 닭이 알을 품었다가 까지 못하는 것 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날의 성서 해석학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초대교회의 해석학은 상당히 미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한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기독교를 단지 ‘가르침’(敎)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고 따라야 할 ‘진리’(道)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3.2. 평양대부흥운동의 성령: ‘한국의 오순절’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융합적 사역

한국의 초기교회에서는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성신이 임하길 기도하였으며,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동굴이며, 성령은 등불’이었다.⁸⁴⁾ 당시에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인 성령론과 큰 차이는 없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기대 가운데 있었으며,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서는 오순절에 대하여 특이한 묘사를 하면서 오순절은 신약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사건으로

83) 배 목사 부인, “둘이 알을 잘 품지 아니함,” 「그리스도 신문」 6:17 (1902. 4. 24.)

84) 「그리스도 신문」 2:15 (1898. 4. 14.)

제시하고 있다.⁸⁵⁾

오순절이 왔을 때 바람과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소리가 바람과 같았다. 그 집에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함이 없고 그 밖의 나무 잎이 흔들리지 않았고 길에 모래를 날리지 않아도 큰 바람 소리가 있었다. 그 밖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머뭇거리 서로 대하여 놀랐다. 그 소리와 같이 혀 같은 불길의 갈라져 여러 사람 위에 각각 내리우는 것이 있고 제자들이 다 성신의 가득함을 얻었다. 성신이 불 같이 마음 안에 있는고로 불선을 다 사르고 즐거움이 많으니 다른 나라 방언을 하였다...그 성신의 가득함을 언약하는 것은 유대 사람만 위할뿐 아니라 조선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얻을 수 있느니라...누구든지 착실한 마음으로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 앞에 기다리면 성신의 가득함을 얻겠느니라.

장로교에서도 오순절 성령의 사역에 대한 열망이 처음부터 가르쳐지고 있었다. 초기 가르침에 따르면, 천지창조와 구속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으므로 “지금도 우리가 일심으로 간구하면 성령 감화하심을 얻는다.”⁸⁶⁾ 1898년 성령강림주일에는 “성령의 강림을 극진하게 구하여 성령 감화함을 얻도록” 권면하고 있다.⁸⁷⁾ 초기 장로교는 오순절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신이 강림한지 지금까지 19세기나 되었지만 지금도 성신의 강림하시는 것이 첫 세기와 또 같으뇨? 그러하니 누구든지 능히 성신을 받을 자에게는 성신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시사 친히 말씀하여 가르치시고 그 마음을 열어 주시고 잘 듣게 하시고 상주의 뜻을 순종하게 하신다.”⁸⁸⁾

85)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 9 (1897. 3. 31.)

86) 「그리스도 신문」 2:18 (1898. 5. 5.)

87) 「그리스도 신문」 2:21 (1898. 5. 26.)

평양대부흥의 서주곡으로 시작된 1903년 하디의 원산부흥회에 대하여 메티 아이비는 “지난 주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성경의 오순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백하였다.⁸⁹⁾ 1907년 대부흥 직후에, 한 사설은 “하나님께서 신기하고 오묘하신 모양으로 친히 임하심이 평양뿐 아니라 경성교회와 인천 용동교회에도 있었으니 대한교회도 그와 같이 되기를 믿습니다.”라는 기원을 하고 있다.⁹⁰⁾ 평양대부흥운동에 동참하였던 이은성은 “이 날은 마땅히 평양교회 사기 머리에 기록할 것이로다.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교회를 창설하사 만국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후일에는 평양성에 교회를 신령함으로 창립하사 우리 감리회의 선진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평가하고 있다.⁹¹⁾

초대교회 사경회에서는 말씀 공부와 기도회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융합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평양대부흥운동도 감리교인들과 장로교인들이 연합하여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였고, 특히 1906년 12월 25일 성탄절부터는 1907년 1월 사경회가 열릴 때까지 저녁마다 기도회가 열렸다고 한다. 사경회 중에도 “기도회는 끊어지지 않았으며, 기도의 열망이 너무나 강하여졌기 때문에 정오 기도회를 매일 갖기로 결정하였다” 이길함은 “이 정오 기도회가 우리에게 뽀엘이 되었다”고 고백하였다.⁹²⁾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말씀과 성령이 융합되는 용광로였다.⁹³⁾

88) 「그리스도 신문」 2:23 (1898. 6. 9.)

89) 메티 아이비, “한국의 원산,” 「여자 선교사 회보」 (1906. 6.). 이 때 하디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그 동안의 노력이 육신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한국교회대부흥운동 1903-1908』, 33.

90) 「신학월보」 5:2 (1907)

91) Ibid.

92) Blair & Hunt, *The Korean Pentecost*, 68-68.

4. 회개와 화해의 융합

평양대부흥운동에 있어서 기도를 통한 말씀과 성령의 융합은 ‘회개와 화해의 융합’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므로 회개와 화해는 동일한 실체의 양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회개와 화해는 종교적이며 사회적인 차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다.

평양대부흥운동을 ‘회개’의 관점에서 보려고 할 때, 우리는 당대의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먼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의 공적인 죄 고백의 내용들은 정상적인 심리상태나 사회생활 속에서는 이해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는지 일차적으로 검토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4.1. 초대교회의 죄론(罪論)과 회개론

초대교회의 문헌에서 죄는 상당히 깊이 다루어지고 있다. 최병헌은 죄를 “눈으로 볼 수도 없는 형상도 없는 물건”으로 보면서,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영영히 죽게 하는 것으로서, 세상 법률이 정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으로 정의한다.⁹³⁾ 그는 죄의 근본을 “태초 시에 원조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하시는 선악과를 먹은 까닭으로 죄의 씨가 생겨 후손들에게 전가된” 원죄에 두며, 아담의 후손들이 ‘자기 욕심대로 짓는 본죄’와 구별하고 있다.⁹⁵⁾ 아담의 범죄는 ‘천주의 명령을 업

93) 「그리스도 신문」 6:2 (1901. 1. 9.)

94) 최병헌, “죄 도리,” 「신학월보」 1:8 (1901. 7.), 309-314.

신여겨' 발생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었다.”⁹⁶⁾

장로교 전통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 신문」에서도 원죄는 충분히 설명되고 있으며, (1) 상주께서는 사람을 처음 내실 때 자신의 본성으로 지으셨고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사 선악을 임의로 선택하게 하였으나, (2)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자신의 임의대로 빠지게 되었으며, (3) 선악과를 따먹은 “이 한 가지 죄를 범함으로써 상주의 주관 하심을 버렸으니 모든 법을 어김이요 그 총애를 잃어버렸다.”고 가르친다.⁹⁷⁾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회개는 오직 성신의 감동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⁹⁸⁾ 그들은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를 분별하는 시금석을 갖고 있었다. “여러 사람의 회개 하는 것을 살펴 보매 혹은 죄를 지은 후에 형벌 받을 것을 섭섭히 여기나니 이는 거짓 회개하는 것이요, 다만 죄를 미워하고 아파하여 다시 짓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것은 진실히 회개 함이다.”⁹⁹⁾ 또한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하여야 하며, 고백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¹⁰⁰⁾

4.2. 평양대부흥운동의 회개와 갱신

위에 언급된 죄와 회개에 대한 가르침은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

95) Ibid., 그는 “오직 중보 되시는 구세주를 믿음으로 성신을 받고, 성신을 믿는 사람은 다 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96) 「신학월보」 1:11 (1901. 10.)

97) 「그리스도 신문」 5:6 (1901. 2. 7.)

98) 「신학월보」 3:2 (1903. 2.)

99) 「그리스도 신문」 6:21 (1902. 5. 22.)

100) 「그리스도 신문」 10:18 (1906. 5. 3.)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일 뿐 아니라 참된 이치와 성신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아니할 것이다.”

과 일치하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차이가 있다면 가르침의 내용보다는 효과와 결과에 있었다. 그들은 진심을 다하여 구체적이며 포괄적으로 회개하고, 마치 전류에 감전이 된 것처럼 존재 전체가 뒤집히는 근본적인 각성과 갱신을 체험한 데 있었다. 대부흥운동 기간 동안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실존적인 고통 가운데 공적으로 고백하였다. 블레어는 부흥회 마지막 밤에 있었던 고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고 있다.¹⁰¹⁾

그리고나서 내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으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보고 싶지도 않은 집회가 시작되었다. 사람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이 그날 밤 공개적으로 고백되었다. 마음과 몸의 고통으로 창백해지고 걱정적으로 떨면서, 죄인이 심판대의 밝은 빛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보았다. 그들이 수치와 슬픔과 자기 혐오감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까지 그들의 추악한 죄들이 떠올랐다. 교만이 사라지고 체면도 있었다.

평양대부흥운동 전후에 있었던 사경회(부흥회)에서 온갖 종류의 구체적인 죄들이 고백되었다. 이덕주는 이 당시의 죄 고백들이 “주로 미움과 시기, 질투, 증오, 불신, 원한, 분노, 미움 등 정신적인 것들과 절도와 횡령, 사기, 방황, 노름 등 물질적인 것들과 간음과 살인, 축첩, 불효 등 윤리적인 것들”로 잘 분석하고 있다.¹⁰²⁾ 그렇지만, 정신과 물질과 윤리는 분리된 것이 아니며 통전적으로 융합된 것이므로, 우리는 ‘통전적인 죄 고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울부짖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바닥에 쓰러져 마루바닥을 치기도 하며, 머리

101) Blair & Hunt, *The Korean Pentecost*, 74.

102) 이덕주, “한국교회 초기부흥운동과 여성,” (서울: 2006년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학술 심포지엄, 2006. 11. 4.), 38.

를 붙잡고 머리카락을 뽑고, 어떤 이들은 자제력을 잃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팔을 뻗고 서 있기도 하였다.¹⁰³⁾ “주 장로는 권 목소리로 간음과 자금 유용을 공개하고 무시무시한 고통에 빠져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¹⁰⁴⁾ 어떤 사람은 ‘믿기 전에 동료를 살해하였다’는 고백까지 하며, 어느 집사는 ‘믿기 전에 딸을 독살한 범죄’를 고백하였다.¹⁰⁵⁾ 블레어는 영적인 관점에서 죄 고백을 잘 보고 있다.¹⁰⁶⁾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않은지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나도 내 의견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죄 지은 영혼에 임하면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땅의 어떤 권세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죄 고백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가련한 영혼들의 비명이었고 전 인격적인 고백이었으며, 그들의 전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즉각적으로 토해낸 고백이었다. 평양대부흥 기간 중에 회개는 구체적인 보상, 흠친 물건 반환, 빛 갠음 등으로 실질적인 열매를 맺었다. 무어는 대부흥 기간 중의 회개가 한국인의 심성을 결정적으로 바꾸었다고 보았다.¹⁰⁷⁾

무엇보다도 이 부흥은 기독교의 증거에 있어서 또 다른 결정적인 장을 기록하였다.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부활의 옛 복음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고 충만하며 완전한 구원의 복음이 되었으며, 문자 그대로

103) “Letter of W. L. Swallen to A. J. Brown (1907.1.15),”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한국교회대부흥운동 1903-1908』, 132-136.

104) G. Lee,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KMF* 3 (1907.3.), 33.

105) “Letter of G. S. McCune to A. J. Brown” (1907.1.15.),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한국교회대부흥운동 1903-1908』, 127-128.

106) Blair & Hunt, *The Korean Pentecost*, 74.

107) J. Z. Moor, “The Great Revival Year,” *KMF* 3 (1907. 8.), 118.

로 게으르고 무능하며 아무 목적도 없이 살던 한국인들을 복음적 권능의 활동가들로 변화시켰다.

무어가 볼 때, 평양대부흥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심각한 폐습으로 여겨진 조상 숭배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었다.¹⁰⁸⁾

3000년 동안 죽은 자의 통치(조상 숭배)를 통해 한국은 죽은 백성들이 되었다...선교사들의 입장에서 조상 숭배에 대항하는 어떤 특별한 공격이 있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와 이 부흥들이 조상 숭배에 대대적인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이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는 한국에 자신을 적응시키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기독교가 한국 백성들의 영적, 지적, 그리고 도덕적 필요들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4.3. 화해와 일치의 해석학

평양대부흥운동의 회개는 개인적인 갱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고 통전적인 샬롬(shalom)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평양대부흥운동의 시발점과 촉매제가 된 하디의 죄 고백과 회개는 외국 선교사와 토착 교인들 사이에 진정한 교통과 화해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디는 1904년 8월 30일 예배에서 자신의 실패를 고백하였고, 그의 고백을 들은 성도들도 그들이 선교사들을 질시하였음을 고백하여 참된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¹⁰⁹⁾ 대부흥운동 기간 동안 일어난 회개 운동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108) Moor, "The Great Revival Year", 118. 주상호는 「신학월보」 2:9 (1902. 9.) 에서 “우리가 버릴 폐습”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다.

109)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어 첫 번째로 요구하신 일은 내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 시간을 할애한 사람들 앞에서 나의 과거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밝히려는

대한 선교사들의 인식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무어는 자신의 인식 속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¹¹⁰⁾

이러한 부흥들은 나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첫째로, 표면적으로 서양과 정 반대되는 것이 수천가지가 있을지라도 한국 사람들은 그 마음과 모든 근본적인 일들에 있어서 서양의 형제들과 하나라는 것이다 (행 17:26-27). 둘째로, 이 부흥들은 나에게 기도와 어린이와 같은 단순한 신뢰 속에서 모든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양은 서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많은 것들과 심오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배우기 전에는 결코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full-orbed Gospel)을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었다.

이리하여 초기교회의 대부흥운동으로 조선사회를 사로잡고 있던 척외양이(排外洋夷)를 극복하고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 교감과 교통을 이룰 수 있었다. 존 가우처(J. Goucher)는 1907년 한국을 방문한 후, “선교사들의 연합정신과 어디를 가든지 채충전된 영적 분위기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와 같은 것은 이전에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¹¹¹⁾

초기교회의 대부흥운동으로 후기 조선 사회를 양분시켰던 반상의 문제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길선주가 연못골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할 때, 집회가 시작되기 전과 시작되었을 때 ‘양반들’과 ‘상놈들’이 서로 반대 쪽에 분리되어 앉아 있었는데, 집회가 끝나기 전

것이었다. 이것은 괴롭고 창피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하여 내시려고 이 일을 선하게 여기시어 감당하게 하셨다.’” Hardie, “R. A. Hardie’s Report,” (1904), 23.

110) Moor, “The Great Revival Year,” 118.

111) KMF 편집부 편, “What Prominent Men have Said,” *KMF* 3/10 (1907.10.), 158.

에 “양반과 상놈이 형제애 속에 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¹¹²⁾ 초대교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미 반상의 철폐를 가르치고 있었다. “교회에서는 잘 믿어야 양반이며 그렇지 않으면 상놈이다”¹¹³⁾

초기교회의 대부흥운동에 있어서 화해와 일치의 가장 깊은 과급력은 여성의 신분과 의식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드러났다.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 여성들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 것이 분명하다. 초기 신문에서는 “여자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야만 나라의 악풍”이고,¹¹⁴⁾ “국가의 흥망성쇠는 부인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여성들이 “규문에 잡겨 평생 지내는 풍속이 없어야 한다”고 제안하며,¹¹⁵⁾ “암탉이 새벽에 울면 재수 없다”는 속담까지 비판하고 있다.¹¹⁶⁾ 초기 교회는 여성에 관한 온갖 폐습과 악습, 그리고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많은 의식과 관습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하며,¹¹⁷⁾ “내외하는 풍습을 버리고, 부부가 함께 예배에 나오도록 권하며”,¹¹⁸⁾ 나아가 여성의 선거권과 여성들의 정치 참여까지 독려하고

112)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마가렛 베스트가 브라운 총무에게 보낸 편지,” (1907.3.12.) 『한국교회대부흥운동 1903-1908』, 145.

113) 「그리스도 신문」 5:28 (1901. 7. 11.)

114) 「대한그리스도인회보」 2:30 (1898. 8. 30.)

115) 「그리스도 신문」 5: 9 (1901. 2. 28.)

116) 「대한그리스도인회보」 2:30 (1898. 8. 30.)

117) 「그리스도 신문」 5:26 (1901. 6. 27.) 에 따르면, 동양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심히 낮은 데 있으나, 서양 여인의 지위가 높은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후부터이다” 중국의 전족법은 악습 가운데 악습이다 「대한그리스도인회보」 2:10 (1898. 3. 2.). 한국의 혼인 풍습에서 “미리 결혼하여 두는 악습을 버리고, 당사자가 대면하여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스도 신문」 6:16 (1902. 4. 17.). “돈냥 있는 집에서 10세에 미리 배필을 결정하는 악습은 세계 각국의 풍속과 다르다.” 「그리스도 신문」 10:9 (1906. 3. 1.). “부모가 결정하는 것은 재산만 보는 것이다.” 「신학월보」 4:11 (1904. 11.). 당시의 있었던 일반적인 폐습에 대해서는 「신학월보」 3:7 (1903. 7.)을 보라.

있었다.¹¹⁹⁾ 사실 초기 부흥에 있어서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일하게 회개와 중생을 경험하며, 화해와 일치를 경험하였다. 1907년 2월 11일에는 감리교의 남산현교회에서 비록 휘장으로 남녀의 공간을 구분하긴 하였지만,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남녀 혼성 집회를 가지게 되었다.¹²⁰⁾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오던 시대와 대부흥의 시기에도 축첩은 문화적 관습으로 허용되고 제도화되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첩을 내어 보내는 일들이 이루어졌다.¹²¹⁾ 1907년 사경회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군수는 자신의 “첩을 멀리 보내었다.”¹²²⁾ 원산에서 21년 동안 첩살림을 하던 한 여인은 부흥회를 통하여 남편과 안락한 집을 나와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집을 나와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하는데 보내며 주께서 죄에서 구원하심을 전하고 있다. 그는 이제 재봉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¹²³⁾

초기교회는 종을 부리는 풍속도 철폐되어야 할 풍속으로 보았으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종을 자유롭게 하거나 딸로 입양하기도 하였다.¹²⁴⁾ 초기 부흥운동의 사회적인 융합은 장애인들에게

118) 「신학월보」 3:7 (1903. 7.)

119) 「그리스도 신문」 6:1 (1901. 1. 2.); 「예수교신보」 28 (1908. 12. 30.).

120) G. H. Jones and W. A. Noble, *The Korean Revival: An Account of the Revival in the Korean Churches in 1907*.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New York: 1910), 10-11; 이덕주, “한국교회 초기 부흥운동과 여성,” (서울: 2006년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학술 심포지움 2006. 11. 4.), 35.

121) 「그리스도 신문」 2:23 (1898. 6. 9.)

122) 조지 맥관, “브라운 총무에게 보낸 편지,” (1907. 1. 15.),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한국교회대부흥운동』, 130.

123) M. D. Myers, “The Spirit’s Quiet Work in Wonsan,” *KMF* (1907.4.), 54.

지 확대 되었으며, 그들은 “병신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으며, 소경과 병어리 교육을 한국 역사에서 처음부터 시도하였고,¹²⁵⁾ 온 나라에 고아원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¹²⁶⁾ 그 때에는 교단들도 서로의 벽을 허물고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연합공회를 결성하여 복음 전도와 성경 번역과 신년 부흥회를 함께 하였고, 평양대부흥 이후에는 “1910년 백만인 구령운동”을 함께 준비하며 이루어 갔다. 1905년에는 감리교 신문인 「조선그리스도인 회보」와 장로교 신문 「그리스도 신문」이 하나로 통합하여 출판되기도 하였다. 또한 대부흥운동으로 세계 선교에 대한 의식이 싹트게 되었으며, 선교를 통하여 고립된 조선에서 세계와 융합하는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다. 이리하여 평양대부흥 직후에 장로교에서는 1908년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로, 1909년 최관홀을 시베리아 선교사로, 한석진을 도쿄로, 방화정을 미국과 멕시코로 파송하였으며, 감리교에서는 손정도 목사를 1910년에 만주에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평양대부흥운동을 목격한 맥퀸(McCune)은 “한국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였고, 그들은 매우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며, 극동지역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도구가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전망하였다.¹²⁷⁾ 맨틀(Mantle)은 “한국교회가 동양의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를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에 통역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¹²⁸⁾

124) 김우제, “우리나라에서 드문 일,” 「신학월보」 3:7 (1903. 7.)

125) 「신학월보」 2:9 (1902. 9.)

126) 부산의 첫 고아원은 1898년에 ‘대만에 의지 없는 어린 아이들이 있음에 알고 가급히 여긴 브리 부인’이 처음 세우며 원두우 목사가 그 고아원의 회장이 되었다. 「그리스도 신문」 2:33 (1898. 8. 18.)

127) 조지 맥퀸, “브라운 총무에게 보낸 편지,” (1907. 1. 15.)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한국교회대부흥운동』, 130.

128) “What Prominent Men have Said,” KMF 3/10 (1907. 10.), 158-159.

나가는 말

100년 전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는 참으로 신선하였으며 이미지도 깨끗하였다. 초기 교회는 한국 문화와 역사와 언어와의 융합에 힘을 쏟았으며,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철저한 회개와 갱신을 통한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있었다. 그 후 100년 동안 우리는 외형적으로 비대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쓰라린 분열의 역사를 경험하였으며, 심각할 정도로 신선함을 잃었고, 이미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면서 분열의 해석학을 극복하고, 남녀노소와 동서남북과 민족과 세계와 함께 어우러지는 통전적 융합의 해석학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보게 된다.

<주요어>

평양, 부흥, 융합, 성경 해석, 통전, 말씀, 성령, 회개, 갱신, 화해, 일치

<Key Words>

Pyongyang, revival, convergence, biblical interpretation,

Holy Spirit, renewal, reconciliation

참고문헌

- 김승태, 류대열,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 성장과 수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매티 아이비, “한국의 원산,” 「여자선교사 회보」 (1906. 6).
- 배 목사 부인, “뉘이 알을 잘 품지 아니함,” 「그리스도 신문」 6:17 (1902. 4. 24.).
- 성서번역자회 편, 『성경전서』, 요코하마: 대영성서공회 / 요코하마 복음인쇄합자회사, 1911. 3. 15.
-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존 로스, J., 맥킨타이어 역, 봉천: 문광서원, 1887.
- 옥성득, “평양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한국기독교와 역사」 25 (2006. 9.), 90.
- 이덕주,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서울: 홍성사, 2006.
- 이만열,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에 대한 몇 가지 검토”, 서울: 2006년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학술 심포지엄, 2006. 11. 4., 7-25.
- 이수정 편, 『신약 성서마태전』, 요코하마: 미국성서공회, 1884; 『신약 성서마가전』, 요코하마: 미국성서공회, 1884; 『신약 성서로가전』, 요코하마: 미국성서공회, 1884; 『신약 성서약한전』, 요코하마: 미국성서공회, 1884; 『신약 성서사도행전』, 요코하마: 미국성서공회, 1884.
-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한국교회대부흥운동 1903-1908』,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 최병현, “죄 도리,” 「신학월보」 1: 8 (1901. 7.), 309-314.
- 한석진 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노회록. 제 1회-제 5회』, 경성: 야소교서회, 명치 45년.

Blair, W. N. and Hunt, W. B., *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s Which Followed*,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7.

Hardie, R. A., “R. A. Hardie’s Report,” *Minutes of the Eighth Annual Meeting*

-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4*,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4, 23-29.
- Hardie, R. A., "R. A. Hardie's Report," *Minutes of the Seven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3*,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3, 25-28.
- Jones, G. H. and Noble, W. A., *The Korean Revival: An Account of the Revival in the Korean Churches in 1907.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New York: 1910, 10-11.
- KMF ed., "Cheap Paper," KMF (1907.6.), 87.
- KMF ed., "What Prominent Men have Said," KMF 3/10 (1907.10.), 158.
- Lee, Graham., "How the Spirit Came to Pyeng Yang," KMF 3 (1907.3.), 33.
- Moffet, S. A., "Evangelistic Work," *Quarto Centennial Papers Read before the Korean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09), 17-18.
- Moor, F., "The Revival in Seoul," KMF (1906. 6.), 116.
- Moor, J. Z., "The Great Revival Year," KMF 3 (1907. 8.), 118.
- Myers, M. D., "The Spirit's Quiet Work in Wonsan," KMF (1907.4.), 54.
- Roco, W. B. M.,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Nanotechnology, Bi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gnitive Science*,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3.
- Thiselton, Anthony C., *The Two Horizons: New Testament Hermeneutics and Philosophical descrip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Heidegger, Bultmann, Gadamer, and Wittgenstein*, Grand Rapids: Eerdmans, 1980.
- Underwood, H. D., "Korea's Crisis Hour," KMF (1908. 9.), 131.

<초록>

평양대부흥운동의 성경 해석

-통전적 융합의 해석학-

김정우

(총신대 신대원 교수, 구약학)

100년 전 평양대부흥운동 당시에는 제대로 된 한글 성경이나 체계적이며 학문적인 성경 해석도 없었고 교회도 제대로 조직되지 않았지만, 지도자들은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순수하였기 때문에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신선했다. 초기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과 한국의 문화, 역사, 언어와의 융합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특히 그들은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데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한글을 경전 언어로 거듭나게 하여 승화시켰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쉽게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그들은 한국과 기독교의 접목을 통하여 한국이 자주 독립 국가로 우뚝 서고 문명사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힘썼다. 기독교와 한국의 융합이라는 발판 위에서 일어난 초기 부흥운동과 평양대부흥운동은 사경회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융합이 일어나게 되었다. 초기 교회의 성경 해석은 현대 해석학의 기준으로 볼 때 지극히 미미하였지만, 당대에 인기 있던 해석학인 풍유적 해석을 도입함으로써 해석적 융화를 이룰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도(道)로서의 기독교를 가르침으로써 높은 경전 의식에 근거한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하며, 성령 체험을 통한 삶의 근원적 변화를 함께 이룰 수 있었다. 초기 교회는

죄를 전통적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 충분히 가르치고 있었으나, 대부흥에 나타난 죄 고백과 회개는 정신적, 물질적, 윤리적 죄를 모두 다 포함하는 통전적 회개였으며, 포괄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었다. 전인격적이며 통전적인 회개는 자연스럽게 화해와 일치 운동으로 이어졌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양반과 상놈,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모두가 소통하는 아름다운 융합을 이루어 내었다. 100년 전 평양대 부흥은 21세기의 교회가 지향할 진정한 부흥의 모델과 다원화된 사회와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통전적 융합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준다.

<Abstract>

**Interpretations of the Bible in the Great Revival
Movements of the Early Korean Church(1897-1907):
Hermeneutics of Holistic Convergence.**

Prof. Jungwoo Kim
(Chongshin Uni.)

One hundred years ago when the early Korean Church had experienced a great revival movement which was sparked in Pyongyang and later spread throughout all over the country, there was neither a complete Bible, nor a well-balanced academic interpretation of the Bible, nor a well-established church organization like the synod and general assembly; however, the seemingly non-organized infant Christianity felt fresh

to the non-believing people due to the purity of the Gospel as well as the integrity of the spiritual leaders in their ethical and spiritual life. At that time the spiritual leaders had aimed at the holistic convergence of Christianity with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history and language, and eventually won the souls of the Koreans. They poured out their energy in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Korean and as a result, Hangeul was born again as the language of the canon of the major world religion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and became the medium of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civilization. Based on the firm ground of the convergence of Christianity and Korean culture, the early revival movement evoked a strong fusion of the word of God and the Holy Spirit by intensive Bible studies and earnest prayer meetings. The confession of sin during the great revival movement can be characterized as holistic which included material compensation as well as a radical change of the value system and transformation of ethical life. As a result, the early revival movement naturally achieved the biblical ideal of Shalom in terms of reconciliation between the natives and the foreigners, the noble and the common, the master and the servant, the men and the women, and thereby created an hermeneutical paradigm of holistic convergence which became a spiritual inheritance to us who celebrates the centennial of the great revival movement in Pyongyang.